

우리쌀로 ‘나눔의 정신’ 실천 NH저축은행, 복지관에 기증



NH저축은행(대표 최상록·사진 왼쪽) 임직원들이 우리쌀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.

최근 서울 동작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NH저축은행 임직원은 우리 쌀 1750kg을 기증하고, 홀몸어르신들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. 봉사활동에는 최상록 대표를 비롯한 10명의 NH저축은행 나눔봉사단원들이 함께했다.

봉사활동에 참여한 최 대표는 “임직원의 따뜻한 정을 담아 우리쌀을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면서 우리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”고 밝혔다.

이문수 기자

[최종편집 : 2017-05-08]